

일본뇌염
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본뇌염은 Flavivirus속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작은빨간집모기(Culex tritaeniorhynchus)에 물리면 감염되며, 주로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숙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(8월~11월)에 발생. ■ 아시아 지역 소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염으로 매년 3~5만 명이 감염되며, 뇌염으로 진행된 경우 약 30%의 사망률을 보임.
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본뇌염 바이러스(Japanese encephalitis virus) ■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급성뇌염, 무균성 수막염,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등으로 발현할 수 있음 ■ 현성 감염인 경우 급성으로 진행하여, 고열(39~40℃), 두통, 현기증, 구토, 복통, 지각 이상 등을 보임 ■ 의식장애, 경련, 혼수 등에 이르며, 회복되어도 1/3에서는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음(합병증) ■ 감염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,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
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존적 치료(호흡장애, 순환장애, 세균감염 등에 대해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)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본뇌염에 감염 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 ■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모기 박멸이 중요 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학교내 방역 실시 및 물 웅덩이 제거 등 환경조성 ■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새벽과 해가 진 무렵 저녁에는 야외 활동 자제 ■ 15세 이하 어린이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시기에 필히 예방접종 실시(기초접종 3회, 추가접종 2회) ■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 최소화 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■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,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함 ■ 노출된 피부나 옷, 신발상단,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(사용 전 반드시 주의사항 숙지)